

충청북도 '자연정원 만들기'... 도시숲 조성 잔걸음

생활권도시숲 등 6개 사업 268억 원 투입 미세먼지 저감 여가공간 창출 등 효과 기대

충청북도가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는 물론 도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권도시숲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라춤길 △생활밀착형숲 △녹색자금지원 △무궁화동산 등 총 6개 사업에 268억 원이 투입된다.

생활권도시숲은 도시 생활권 주변지역에 휴양·정서함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경관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이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생태적 감

수성 증진을 위한 학교숲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과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 등 4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한다.

기후대응도시숲은 폭염과 도시열섬 현상 완화 탄소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도시 생활권 주변 지역에 조성하는 대규모 숲으로 청주 2개소 영동 진천 각 1개소 등 4개소에 45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도시바라춤길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성하는 숲이다. 청주시 충주 시 진천읍성 혁신도시 일원에 조성하게 되며 충주시는 3단계 사업으로 60억 원 청주시 진천읍성 혁신도시는 2단계 사업



충청북도는 24일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

으로 각 47억 원 60억 원을 투입하여 바람 생생숲 디딤확산숲 연결숲을 조성한다.

생활밀착형숲은 탄소 저감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

로 조성하는 생활정원이다. 청주 충주 제천 괴산에 옥상정원 1개소 실외정원 4개소를 조성하며 22억 원이 투입된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권 숲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녹색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 충주 제천 괴산 음성에 나뭇길 3개소 도시숲 2개소를 조성하며 21억 원이 투입된다.

무궁화동산은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에 무궁화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제천에 1개소를 조성한다.

조미에 충청북도 정원문화과장은 "도시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기후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이다"라며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자연정원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 bpda@naver.com



광주광역시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5일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밖청소년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광주시, 학교밖청소년 체육대회 6년 만에 재개... 프로그램 풍성

광주광역시와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5일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밖청소년 체육대회'를 6년 만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즐거운 체육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는 체육행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6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체육대회는 기관별 입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개회식·꿈드림청소년단 위촉식·대표 청소년 포부 발표·선수 대표 선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체육행사는 공굴리기·과도타기·하늘높이·숨쉴다리기·미션 달리기 등 팀별 대항전과·피어플레이·양궁·물병 게임·수학문제 풀기 등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와 꿈드림청소년단 정책 수요 조사 부스·코인으로 운영되는 매점 등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만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체육대회는 일상속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해 리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공유자원을 활용하며 현수막 사용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학교밖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서로 협력하며 성취감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 줄인다

5~12월 배움터 교육 무료로 찾아가는 파견 서비스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전주시 다가서당과 익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디지털 배움터와 체험존이 상설 운영된다.

도시 산간 지역 등 접근성에 한계가 있거나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도민들이 주민센터, 경로당 등 집 근처 공공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파견 교육을 진행하고 에듀버스 2대도 운영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초(스마트폰 활용, 카카오톡 활용 등) △디지털 생활(키오스크, 모바일뱅킹, 온라인 민원 발급,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심화(기초 코딩, 생성형 인공지능(AI) 이해와 활용, 데이터 활용 등)로 구성됐다.

디지털 사기·피싱 예방, 디지털 저작권 이해, 로봇 기술 등 신기술과 디지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디지털 교육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상설 배움터 내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하면 키오스크, AI 스피커, 온라인 스튜디오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지난해 도민 3만8536명이 디지털 배움터 교육을 이수했으며 그중 60대 이상이 2만9232명으로 75%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교육 목표는 4만1000명으로 지역 정보

통신기술(ICT) 인재 90여 명을 디지털배움터 감사 및 가이드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문제해결형 디지털 교육'을 새롭게 강화해 '취약계층 디지털 사회참여 지원 과정'을 중점 추진한다.

'취약계층 디지털 사회참여 지원 과정'은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지역 주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교육을 통해 실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특화형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초·중학생 대상 AI 활용 및 코딩 교육 △보호아동·청소년자립 준비 청년 미래 설계 지원 △귀농·귀촌인 대상 스마트 농업·드론 자격증반 등 실전형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이후에는 취업·정착 연계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기기의 확산에 따라 찾아가는 디지



전북특별자치도가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시행한다. 전북자치도

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도민이 실생활에서의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는 취약계층이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자립과 취업 연계 등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디지털배움터 교육은 도민 누구나 가까운 배움터 또는 파견 교육을 통해 무료로 디지털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디지털 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엄재만 기자 AMA911@naver.com

보령시 "도시형 라이프 축제 즐기러 오세요"

내달 3~5일 모터페스티벌 개최 실제주행·기술시연·직접경험

충청남도 보령시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대천해수욕장 마드엑스포광장에서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4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보령시가 주최하고 아자자동차대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충청남도가 후원한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단순한 자동차 전시를 넘어 자동차 문화와 해양 도시 보령의 지역 정체성·최신 모빌리티 트렌드를 융합한 도시형 라이프스타일 축제로 기획됐으며 '모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시·체험·경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국내외 관광객과 모터스포츠 팬



보령시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마드엑스포광장에서 '2025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보령시

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브랜드 차량·튜닝카·캠핑카·현역 레이싱카·자율주행차 등 250대 이상의 차량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은 단순 관람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주행과 기술 시연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드리프트·짐카·나스텐트 바이크 등의 경기와 오프로드

차량 동승 체험이 마련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브랜뉴 레이싱'이 연출하는 '그리드 정렬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또한 4일에는 어린이날과 연계한 마술 공연·버블쇼·어린이 레크리에이션 등 무대형 키즈 이벤트가 마련되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5일에는 캐릭터 코스튬 체험존·페이스페인팅·아이싱 쿠키 만들기 등 어린이 감성에 최적화된 체험형 콘텐츠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이와 함께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15개 이상의 체험 부스도 함께 마련된다.

보령시는 이번 모터페스티벌을 통해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간을 자동차 문화의 중심지로 재해석하고 20·30 관광객 세대를 타겟으로 한 세대 간 융합형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박민애 기자 hjs@skyedaily.com

아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

제4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충청남도 아산시가 2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2050 탄

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2024년 6월 출범한 아산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총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가다듬고 보완해 온 '아산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획'에 대한 최종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산업·학계 인사·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마련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구체적인 대책 △시행 전략 △이행평가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선도 도시 아산'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서 기자 hjs@skyedaily.com



홍성군 "따르릉 여행 떠나자"

문체부 활성화 사업 선정... 프로그램 다채

충청남도 홍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공모에 충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24일 홍성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의 자전거 여행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홍성군은 대표 관광코스인 홍성 천수만 자전거길(공리항~수룡동·왕복 약 20km)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 공유 터미널 설치 △공유 자전거 구매 △주요 거점 스탬프 인증 박스 설치 △자전거 활성화 투어 등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해 자전거 여행을 활성화한다.

이번 사업도 선정으로 홍성군은 총사업비 1억3400만 원 중 국비 6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사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홍성 천수만 자전거길은 홍성스카이라인·남당항 해양분수공원·남당노을 전망대·늘글리해상파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선정되며 자전거 여행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자전거 여행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며 "자전거 여행 문화가 지역을 찾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애 기자 hjs@skyedaily.com

"대학생 생활지원금 드림" 순창군, 내달 1~20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순창군육천장학회와 함께 추진하는 '2025년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순창군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반기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순창군의 보편적 복지정책 중 핵심사업으로 지역 내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매년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육천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하는 형태로 대학에 재학 중인 순창 출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등록금 외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사업의 큰 특징으로 매년 꾸준한 신청률을 기록하며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중에서 2025년 상반기 공고일 기준 본인과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

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